

I. 말라기서 제목

말라기서는 꾸짖음과 소망의 책, 그리고 십일조에 관한 책이다. 히브리어 성경은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 말르아키(나의 사자) 라고 했다.

II. 저자와 기록연대 : 주전 432 년- 425 년 경.

말라기서의 저자: 저자는 말라기 이다(1:1). 그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예언한 최후의 선지자이었다. 즉,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잇는 교량의 역할이 그의 사역이었으며 이스라엘에 계시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신저 이었다. 아마도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말라기서의 기록 목적

1) 기록목적을 요약하면,

- 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를 가르쳐주고,
- ②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타락한 현상을 변론식으로 기록.
- ③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 본서의 진정한 목적.

2) 말라기서의 주제와 중심사상

말라기서의 주제는 만군의 여호와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린다.

중심사상은 ① 하나님의 사랑, ② 제사장, 백성들에 대한 책망의 하나님, ③ 십일조 사상, ④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부성적인 하나님 사상 이다.

IV. 말라기의 주제와 구성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환멸을 느끼고 의심했다. 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의심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의구심을 품었다. 외적으로는 이러한 태도가 껍데기만 있는 예배의식, 십일조와 제물의 사취, 도덕법과 의식법에 대한 무관심으로 명백히 드러났다.

말라기는 이러한 문제들과 태도에 도전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열심과 순종을 요구한다.

말라기서는 세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 (1:1-5),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에 대한 책망과 경고 (1:6-3:15), 마지막 결론으로 민족을 향한 약속(3:16-4:6)이다.

먼저 1) 이스라엘 민족의 특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2) 이스라엘 타락의 경고는 제사장들의 죄 (1:6-2:9)와 백성들의 죄 (1:7-4:3) 로 구분 되는데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경고이다. 3) 마지막은 결론으로 엘리야의 파송을 약속하고 회개를 촉구한다.

V. 말라기서의 배경:

통치자라는 뜻의 바사 용어 페사흐(1:8)가 사용된 점은, 이 책이 바사시대에 기록되었음을 말해준다. 희생 제사가 성전에서 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전은 재건된 상태였다(1:7-10). 또 말라기의 예언은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것과 동일한 문제들을 말하고 있다. 부패한 제사장(1:6-2:9 느 13:1-9), 십일조와 봉헌제물에 대한 무관심(3:7-12 느 13:10-13), 이교도를 아내로 맞는 통혼(2:10-16 느 13:23-28) 등이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BC 444 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BC 432 년에 바사로 되돌아갔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BC 약 425) 느헤미야는 말라기에 기록된 죄들을 다루었다. 그러므로 말라기는 자신의 메시지를 느헤미야가 없었던 BC 432-425 년 사이에 선포했을 것이다.

VI. 말라기서의 주제들은

- 1)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 2)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심의 기도이다.
- 3) 지도자들이 책임이 있다. 만약에 백성들이나 지도자의 죄가 있으면 책망이 임한다.
- 4)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축복과 죄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 5) 메시아의 강림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된 구약 전체의 주제이다.

VII. 말라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 1) 온전한 제사를 드리실 대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 2) 언약의 사자로 오신 그리스도
- 3) 생명의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
- 4) 그리스도의 강림 예언

VIII. 말라기서의 중심 단어, 중심 절, 중심 장:

- 1) 중심 단어 : 회개
- 2) 중심 절 : 4:4
- 3) 중심 장 : 4 장